

4/3/22

설교 제목: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3장 13-21 절

-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절관주** 잠 30:4, 행 2:34, 요 6:38, 요 6:42
-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정죄
-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 (요 3: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순절 (Lent)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절기로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 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2022 년 올해 사순절 기간은 3 월 2 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 월 16 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의미로 절제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한 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이 여전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아야만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뒷바침해 주신 것입니다.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에돔 땅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도록 허락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 지나 오랜 행진으로 인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일이 터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공연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굶어 죽게 한다는 믿음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굶어 죽게 한다니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자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책을 주셨습니다.

놋으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한 밤중에 당신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달리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 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어 애굽을 7 년 흉년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던 요셉이 죽자 그의 공로가 점점 잊혀져가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노동을 가중시켰고 이를 견디기 힘들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로 왕에게 10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당하는 고생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 때가 좋았다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 우상 숭배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탈출해서 다 잊어버려야 할 세계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던 애굽 시절이 현재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록 먹을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을지 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참아내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못 견디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을 벌하고자 불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불뱀은 껍질에 붉은 반점이 많은 독사의 일종으로 이 뱀에 물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형벌로 뱀에 물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 나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비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으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장대를 쳐다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책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이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자 모두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가 있고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받고 영생을 할 것이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당신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정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인데 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 빛되신 예수 그리스께로 나오지 못하고 오직 진리를 쫓는 자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만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 위에 달린 낫뿔을 쳐다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 받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이 믿음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믿도록 견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택함받은 것에 감사하며 택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